



벽인 줄 알았는데 문이었다.

Logical Mind

Heaven's Door

1회 : 대의 파악(21-24번)

1회: 2025 대의파악 (25평가원 코드 분석 + 맞춤 제작 문제)
2회: 2025 빈칸유형 (25평가원 코드 분석 + 맞춤 제작 문제)
3회: 2025 간접쓰기 (25평가원 코드 분석 + 맞춤 제작 문제)
4회: 2025 기타유형 (25평가원 코드 분석 + 맞춤 제작 문제)

Unit1. 문항별 특징: 21번

1. 어휘적 측면

올해 6월/9월 모의고사 모두 핵심은 문자적 의미가 아닌 비유·관용·추상 표현을 맥락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다. 사전식 뜻풀이로는 정답에 도달할 수 없고, 앞뒤 원인·조건·비교 등의 논리 단서를 통합해야 한다는 점이 공통이다.

밑줄 바로 앞뒤에 해석의 열쇠가 배치되는 경향이 강하다. 6월 문항은 비교 착시와 환경 변수로 성과 평가가 왜곡된 사례를 나열한 뒤 결론으로 허구에 근거한 상승감이라 단정하고, 9월 문항은 2:1의 주파수 관계와 색채의 원형성 비유를 제시한 뒤 ‘배가할 때마다 원위치로 돌아온 듯 느낀다’고 정리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2. 지문의 측면

두 지문은 **학제적 융합 소재를 선택한 설명문**이라는 공통성이 있다. 첫 지문은 스포츠 클라이밍과 심리학을, 둘째 지문은 음악 이론과 물리·지각 심리의 접점을 결합한다는 구조이다.

독자의 직관과 상식을 혼드는 ‘역 직관적 메시지’를 중심에 둔다. 첫 지문은 성과가 좋아 보일 때조차 외적 요인이 만든 착시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둘째 지문은 주파수의 선형 상승이 지각 차원에서 원형성으로 느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공통성이 있다.

전개 방식은 **정의→사례→일반화의 패턴**을 공유한다. 6월 지문은 외적 요인과 비교의 착시를 정의하고 파트너 컨디션·습도 등의 사례를 배열한 다음 자존감 상승이 허구에 근거한다고 일반화하고, 둘째 지문은 옥타브의 정의와 2:1 비율을 제시한 뒤 색채 원형성과의 유비를 통해 주파수 배가 때의 원환적 지각을 일반화한다.

난이도 조절 장치는 ‘**낮선 개념을 친숙한 비유로 푼다**’에 있다. 독자는 전문 용어(illusion, octave, circularity)를 맥락 설명과 비유로 해석해야 하며, 각 주·괄호로 기본 어휘를 보조하여 독해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구성적 유사성이 있다.

수험생은 **표층 사실(잘 올랐다, 주파수가 커졌다)을 넘어 개념적 결론(허구 기반 상승감, 지각적 귀환감)을 도출해야 한다**.

3. 선지의 측면

정답 선지는 본문 핵심을 과장이나 누락 없이 압축 재진술한 문장이라는 공통성이 있다.

오답 선지의 패턴은

- ① 부분 사실만 떼어내 핵심 비유를 잃게 만드는 누락형
- ② 지문에 없는 원인·효과를 덧붙이는 첨가형
- ③ 범위를 확대·축소하여 의미를 비틀어 버리는 일반화 왜곡형
- ④ 용어를 바꾸어 논리 관계를 바꾸는 전도형

두 문항 모두 ‘**단어 몇 개가 맞아 보여도 핵심 관계가 보존되었는가**’가 판별 기준이다. 첫 문항의 ‘비교는 동기를 떨어뜨린다’ 류 진술은 지문 전체의 요지와 무관하거나 국지 사례를 일반화한 오류이고, 둘째 문항의 ‘동일 주파수로 복귀’ 류 진술은 옥타브 개념을 정반대로 오해한 오류라는 공통성이 있다.

4. 수능 출제 예측

올해 수능에서도 비유·관용·추상 표현의 문맥적 의미 파악형이 유지·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과학·예술·정치철학·인지과학 등 **융합 소재**에서 낮선 표현을 제시하고, 해당 표현을 개념적으로 재진술한 선지를 찾게 하는 방식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21. 밑줄 친 the boost is grounded in fiction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소재 유형**: 자존감 + 클라이밍

Basing your self-worth on climbing performance puts you at the whim of external factors. These factors may be random and misleading. Comparison is one source of illusion. Perhaps you felt that you performed well on a certain climb because your partner was having an off day and found the climbing very difficult. You found it only slightly difficult and conclude that you were climbing quite well, when in fact you were climbing no better than usual. Or, your partner was at the top of his game. You felt weak in comparison, when in fact, objectively, you put in a very strong performance. Environmental factors may be involved. Perhaps you mastered your day's objective due to especially favorable conditions, such as low humidity, when in fact, you really didn't climb particularly well. In all these cases, the good or bad feelings you have are not based on something you can take credit for. If the performances boost your self-worth, the boost is grounded in fiction.

* whim: 변덕 ** illusion: 착각 *** humidity: 습도

- ① perceptions of self-growth vary from person to person
- ② your self-confidence is an outcome of constant effort
- ③ the pride you take in your achievement is unreliable
- ④ performance comparison to partners is demotivating
- ⑤ ambitious goals help you improve performance

21. 밑줄 친 come back home again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소재 유형**: 음악 + 자각심리

Here is a fundamental quality of music. Note names repeat because of a perceptual phenomenon that corresponds to the doubling and halving of frequencies. When we double or halve a frequency, we end up with a note that sounds remarkably similar to the one we started out with. This relationship, a frequency ratio of 2:1 or 1:2, is called the octave. It is so important that, in spite of the large differences that exist between musical cultures, every culture we know of has the octave as the basis for its music, even if it has little else in common with other musical traditions. This phenomenon leads to the notion of circularity in pitch perception, and is similar to circularity in colors. Although red and violet fall at opposite ends of the continuum of visible frequencies of electromagnetic energy, we see them as perceptually similar. The same is true in music, and music is often described as having two dimensions, one that accounts for tones going up in frequency and another that accounts for the perceptual sense that we've come back home again each time we double a tone's frequency.

- ① identified tonal differences within the same octave
- ② returned to the original note with an identical frequency
- ③ reached a note named the same but with a different pitch
- ④ restored musical sensitivity by adapting to various octaves
- ⑤ constructed frequency patterns from notes with the same name

1) 밑줄 친 “a poverty of noise”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의미상~~

In cognitive science, researchers have long puzzled over the chaotic patterns of neural firing that occur even when the brain is not engaged in a specific task. At first sight, this spontaneous activity appears to be meaningless background noise, distracting and inefficient. Yet recent studies suggest that such fluctuations are crucial for consolidating memory and fostering creative insight. The mind's apparent disorder may in fact conceal a hidden order. To illustrate this paradox, scientists often invoke analogies from quantum physics. Just as subatomic particles never remain perfectly still but constantly oscillate in probabilistic waves, neurons produce small and unpredictable signals. Though random in appearance, these signals generate a dynamic field where connections can be tested, reinforced, or abandoned. Without this instability, the brain could become rigid and unable to adapt to new information. For this reason, researchers describe modern cognition as suffering from a poverty of noise. In societies obsessed with efficiency, people strive to suppress idle thought. Ironically, by silencing these fluctuations, they lose the very variability that makes flexible reasoning and creative association possible.

* ~~의미상~~
의미상

- ① the constant ~~presence~~ of meaningless impulses in human cognition
- ② the ~~complete~~ absence of distraction leading to perfect concentration
- ③ the evolutionary guarantee that all neural signals serve survival
- ④ the harmful reduction of random fluctuations essential for adaptive thought * ~~의미상~~ ~~의미상~~
- ⑤ the universal ~~improvement~~ of memory when external stimuli are minimized

Unit1. 문항별 특징: 22번

1. 어휘적 측면

올해 6월/9월 모의고사 모두 특정 **개념어를 중심으로 글 전체가 전개**되는 유형이다. 첫 번째 지문은 information과 meaning을 대비시켜 단순한 데이터와 해석의 차이를 부각하며, 두 번째 지문은 social capital 개념을 정의하고 그 기능을 설명한다. 두 경우 모두 특정 용어가 글의 구조를 지배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요지를 파악할 수 없다. **즉, 어휘의 사전적 정의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글 속에서 어떻게 대조·확장·기능화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이다.

2. 지문의 측면

두 지문은 공통적으로 **개념 설명형**의 전형을 따른다.

추상적인 개념을 먼저 제시하고, 그 개념을 구체적 사례나 학문적 정의를 통해 설명한 다음, 결론을 일반화하는 구조이다.

6월 지문은 ‘정보와 의미의 차이’를 제시하고 동전 던지기 사례로 구체화한 뒤 “해석이 중심이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9월 지문은 ‘소셜 미디어와 사회적 자본’을 주제로 하여, 사회학자의 정의를 인용하고 사례를 덧붙인 뒤 “관계망 확장이 사회적 자본이 된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두 지문 모두 독자가 추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와 정의를 병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선지의 측면

정답 선지는 지문의 결론과 정확히 일치한다.

반면 오답 선지들은 공통적으로 ① 부분적 사실만 강조하거나, ② 지문에 없는 내용을 확대·축소하거나, ③ 가치 판단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선지를 고를 때 “본문의 핵심 정의·기능을 충실히 반영한 재진술”만이 정답이라는 원칙을 확인해야 한다.

4. 종합

두 문항은 모두 **“핵심 개념 설명 + 구체적 사례 + 요지 도출”**이라는 구조를 갖는다. 학습자는 개념의 정의와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례가 이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구분한 뒤, 전체 논지를 가장 단순하고 충실하게 담은 선지를 선택해야 한다. 오답은 부분 사실이나 과잉 일반화로 유도되므로, 이를 제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올해 수능에서도 유사한 유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핵심 개념어의 의미를 지문 속에서 파악하는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reason that people participate in social media is because it builds social relations. We increase our **social capital** when we successfully engage in social media. **Social capital describes** the networks of relationships we have that are built on mutuality and sharing of identity, understanding, norms and values. We build ties that may pay off with a job lead or a letter of recommendation. We reinforce our identities through our online presentation in a personal blog or our profile. "The premise behind the notion of social capital is rather simple and straightforward: investment in social relations with expected returns," noted sociologist Nan Lin. Lin's work stresses that it is *who* you know as much as *what* you know that shapes our experience in society. With new media, our reach of connecting is all the greater, **expanding our "who you know" to greater and greater lengths.**

* premise: 전제

- ① 소셜 미디어를 통한 관계망의 확장은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된다.
- ②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인간관계 형성의 기반이다.
- ③ 뉴 미디어의 등장은 사회적 자본 형성의 방식을 변화시킨다.
- ④ 다양한 인적 자본 구축은 소셜 미디어 활동에 필수적이다.
- ⑤ 사회적 경험은 인격 함양과 세계관 확장에 도움이 된다.

2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formation and meaning are, clearly, not the same thing. **The former refers to** uninterpreted data or sensory states whose probability in a certain situation can be easily measured; **the latter refer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data or sensory states, including the special kinds of nuances and values that the information entails, or is intended to have, in the given situation. This applies to any type of information, from alarm signals to sophisticated statements. Take, for instance, a coin-tossing game in which it is decided that throwing three heads in a row constitutes a win. If a certain player ends up consistently with the desired outcome, defeating all who challenge that player, then we tend to interpret the outcome either as the work of Fortune, or else as clever and undetectable cheating on the part of the winning player. **Interpretation is at the core of everything we do, think about, and feel.**

* sophisticated: 정교한

- ① 우리는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낸다.
- ② 우리는 경험적 확률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한다.
- ③ 정보의 양이 너무 많으면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진다.
- ④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출처 확인이 필수이다.
- ⑤ 정보 해석에 개인의 감정이 개입되면 의미가 왜곡된다.

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recent years, scholars have spoken of **trust capital** as an invisible yet powerful resource within communities and organizations. Unlike financial capital, which can be measured directly, **trust capital refers to** the shared expectation that others will act reliably and fairly. This expectation reduces the costs of constant monitoring and negotiation, enabling cooperation to flow more smoothly. Consider, for example, a workplace where employees trust that their colleagues will complete tasks on time. Far fewer rules and reminders are required, and collaboration is less hindered by suspicion. Similarly, in neighborhoods where residents trust one another, people are more willing to share information, lend resources, or protect each other's safety. In such environments, trust operates like **social glue**, binding individuals into a functioning whole. For this reason, sociologists argue that societies with **strong** trust capital enjoy higher levels of innovation, resilience, and collective well-being. Where trust is absent, however, even well-designed systems may falter, burdened by suspicion and excessive oversight. **Trust, though intangible, proves to be one of the most essential forms of capital for sustaining human cooperation.**

- ① 신뢰는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적 자본 역할을 한다.
- ② 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반드시 붕괴할 수밖에 없다.
- ③ 신뢰는 개인의 성실성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수단이다.
- ④ 신뢰 자본은 금융 자본보다 항상 우월한 가치를 지닌다.
- ⑤ 신뢰는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규칙과 감시를 완전히 제거한다.

Unit1. 문항별 특징: 23번

1. 어휘적 측면

두 지문 모두 핵심 개념어를 중심으로 글 전체가 전개된다.

6월 지문: note-taking in discussions이 핵심이다. 단순한 필기 활동이 아니라, 토론 참여를 활성화하고 조직력을 부여하며 발언 준비를 돕는다는 기능을 강조한다.

9월 지문: personal memories vs historical documents의 대비가 핵심이다. 전기 작가와 자서전 작가가 사용하는 증거의 종류와 그 의미가 중심이다. 공통적으로 특정 활동이나 자원(노트 필기, 개인적 기억)을 주요 도구·근거로서 기능하게 설명한다는 점이 같다.

2. 지문의 측면

두 지문은 모두 설명문이지만, **주제를 제시한 후 비교·대조를 통해 요지를 드러낸다.**

6월 지문: 토론의 목적(참여 유도) → 학생들이 필기를 안 하는 현실 → 필기의 어려움 지적 → 필기의 중요성 강조. 구조적으로 문제점 제시 후 해결책을 강조한다.

9월 지문: 전기 작가의 증거 사용(문서 중심) vs 자서전 작가의 증거 사용(개인 기억 중심) → 각 방식의 특성과 수사적 활용까지 설명. 즉, 두 집단의 차이를 대조하면서 글의 요지를 드러낸다.

두 지문 모두 단순 사실 설명이 아니라 ‘왜 중요한가’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둔다.

첫 번째 지문: 필기가 토론 참여와 조직력에 기여한다.

두 번째 지문: 기억과 자료가 각각 글쓰기 유형의 성격과 설득력을 결정한다.

3. 선지의 측면

정답 선지는 지문의 전체 요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담은 문장이다.

오답 선지의 패턴은 다음과 같다.

① 국지적 사실만 강조: 예) brainstorming, summarizing, documenting family histories.

② 지문에 없는 가치판단 추가: 예) crucial conditions for success 등.

③ 논점의 왜곡·축소: 특정 사례를 본문 전체의 요지처럼 일반화.

두 문제 모두 정답은 “중심 개념(필기 / 개인 기억)의 역할·의의”에 충실한 반면, 오답은 부분적 사실만을 확대하거나 지문에 없는 요소를 추가하는 구조이다.

4. 종합 정리

두 문항의 공통점은 **중심 개념의 기능·역할을 파악하게 하는 설명문형** 문제라는 점이다.

6월 지문은 학습 활동(토론+필기), 9월 지문은 글쓰기 활동(전기·자서전+증거)이라는 서로 다른 소재를 다루지만, 둘 다 “중심 자원(노트 / 기억)의 의의”를 묻는다.

따라서 수능에서 유사 유형은 **“특정 활동이나 자원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지문”**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2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purpose of class discussions is to encourage you to be an active participant, not a passive recorder. Much of the emphasis in a discussion is on getting students involved in thinking, reacting, and responding. These are important intellectual activities in the learning process, for through them you are supposed to discover and express your opinions. Writing is an invaluable tool for accomplishing these tasks. Unfortunately, too many times, when class discussion begins, **pens and pencils go down**. Admittedly, it is considerably more **difficult to take notes** from discussions than from lectures, for, unlike lectures, discussions tend to be disorganized and difficult to follow. Also, students usually **don't know how** much of what other students are saying is important. And if you are an active participant, it is **not easy to take notes** and formulate what you want to say. **But note taking in discussions** is not only manageable, it is **also important**. **Note taking helps to keep you active and alert**; it allows you to impose some organization on the discussion; and it can prepare you to speak.

* impose: 부과하다

- ① reasons to standardize procedures for class discussions
- ② strategies to improve note-taking skills for public speaking
- ③ significance of note taking for active engagement in discussion
- ④ effectiveness of summarizing and reviewing notes after class
- ⑤ benefits of brainstorming to generate ideas for writing tasks

2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writing a life, the life narrator and the biographer engage different kinds of evidence. Most biographers incorporate multiple forms of evidence, including historical documents, interviews, and family archives, which they evaluate for validity. Relatively **few biographers use their personal memories** of their subject as reliable evidence, unless they had a personal relationship to the subject of the biography (as a relative, child, friend, or colleague). **For life narrators, by contrast, personal memories are the primary archival source**. They may **have recourse to other kinds of sources** — letters, journals, photographs, conversations — and to their knowledge of a historical moment. **But** the usefulness of such evidence for their stories lies in the ways in which they employ that evidence to support, supplement, or offer commentary on their **personalized acts of remembering**. In autobiographical narratives, imaginative acts of remembering always overlap with such rhetorical acts as assertion, justification, judgment, conviction, and questioning.

* archive: 기록 ** recourse: 의지 *** rhetorical: 수사적인

- ① role of personal memories in different types of life storytelling
- ② advantages of documenting evidence-based family histories
- ③ influence of the source types on the quality of life narratives
- ④ similarity of data sources in describing a person's life
- ⑤ crucial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life narrators

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recent research on decision-making, scholars emphasize the role of metaphors as more than ornamental language. While traditional views regarded metaphors as stylistic decoration, cognitive scientists now argue that they serve as frameworks shaping how people understand complex issues. In fact, experiments show that participants exposed to different metaphors for the same social problem—such as crime described as a “beast” versus a “virus”—propose strikingly different policy solutions. This does not mean that metaphors replace data or logic. Rather, they work alongside evidence to guide interpretation, highlighting certain aspects while backgrounding others. Political speeches, scientific debates, and even everyday conversations rely heavily on such framing. Critics worry that metaphors may distort reasoning, but proponents note that without them, many abstract topics remain inaccessible. Thus, the question is not whether metaphors should be used, but how responsibly they are employed. By contrasting metaphorical framing with purely literal description, scholars conclude that metaphors function as indispensable cognitive tools. They do not merely embellish communication; they actively shape judgment, decision, and collective action.

- ① stylistic differences between metaphors and other rhetorical devices
- ② dangers of misusing figurative language for manipulative purposes
- ③ advantages of relying solely on literal expressions for accuracy
- ④ historical examples of metaphors in political and scientific debates
- ⑤ cognitive functions of metaphors in shaping reasoning and judgment

Unit1. 문항별 특징: 24번

1. 어휘적 측면

6월/9월 모의고사 모두 특정 핵심 개념어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6월 지문은 food라는 기본 개념이 restaurant culture로 확장되어 단순한 생존 수단에서 문화적·사회적 정체성의 상징으로 발전한 과정을 다룬다.

9월 지문은 monastery와 monks라는 개념을 통해, 수도원이 단순한 종교적 공간을 넘어 중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 지적·문화적 중심지였음을 설명한다. 따라서 두 지문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해당 개념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로 확장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2. 지문의 측면

두 지문은 공통적으로 역사적 제도나 문화 현상이 **“기본적·전통적 기능 → 새로운·사회적 의미”**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6월 지문은 생산·분배·가격 중심의 실용적 기능에서 출발하여, 18세기 이후 음식이 문화적 상징이 되고 레스토랑이 사회적 공간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9월 지문은 겉으로는 고립된 종교 공간이었지만 실제로는 지적·문화적 발전과 사회적 지도력을 제공한 원동력이었음을 드러낸다. 수도원은 세속에서 떨어져 있으면서도 동시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 이중적 성격을 지녔음을 강조한다.

3. 선지의 측면

정답 선지는 글 전체의 변화와 확장을 가장 정확하게 담아낸다.

음식 지문의 정답은 ② Beyond Mere Necessity: The Rise of Food Culture

로, 음식이 생존을 넘어 문화로 확장된 요지를 포괄한다.

수도원 지문의 정답은 ③ The Grace of Solitude: Detached from but Attached to Society로, 수도원이 겉으로는 고독과 격리를 지향했으나 실제로는 사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음을 드러낸다.

반면 오답 선지는 공통적으로 국지적 사실만 강조하거나, 본문에 없는 가치 판단을 첨가하거나, 전체 범위를 축소·과장하는 특징을 가진다.

4. 종합 정리

두 문항의 공통점은 역사적 제도와 문화 현상이 단순 기능을 넘어 사회적·문화적 의미로 확장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목이나 요지를 파악하게 한다는 점이다.

핵심 학습 포인트는 ① 지문 속에서 반복 강조되는 변화와 이중성을 찾는 것, ② 단순 기능과 사회적 의미를 구별하는 것, ③ 제목 선지 중 전체 맥락을 포괄하는 답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수능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목·요지 파악형의 대표적 패턴으로, 역사·문화 소재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2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Food, as we all know, is essential for human life. It also is the basis for several major industries found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such as in agriculture, food processing, food retailing and food service. For millennia, the focus of those involved with food as a human and economic phenomenon was on its production, preservation, distribution, pricing and other practical concerns. But in the late 18th century this began to change. Food became more than just a life necessity. Restaurants began to be developed, initially in France but eventually in other nations, as a distinct institution offering people dining choices and table service, the opportunity for socialization and, over time, a finer and finer atmosphere. The rise of restaurants eventually led to a class of diners who prided themselves on being critics of taste, food and cooking. Brillat-Savarin is probably the best known of the 'culinary philosophers' or, in today's parlance, a 'foodie'. One of Brillat-Savarin's better known sayings was, '[t]ell me what you eat, and I'll tell you who you are.'

* culinary: 요리의 ** parlance: 용어

- ① Changing Appetites: The Return of Fine Dining
- ② Beyond Mere Necessity: The Rise of Food Culture
- ③ Tips for Choosing Restaurants for Social Occasions
- ④ Why Table Manners Matter: Food and Class Identity
- ⑤ How Industrialization Is Taking Over Food Production

2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Monasteries were the engine rooms of the Middle Ages. At the height of their activities and influence, monasteries provided intellectual leadership for the institutions of Church and civil governments, innovation in religious thought and practice, medical provision, education, visual culture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They did all this while apparently observing self-imposed isolation from the wider community. For monasteries were intended to function as places set apart from the world, in which monks devoted their lives to a permanent rhythm of religious observance, prayer and study. Religious prayer and praise lay at the heart of monasticism. Both those following this life and those outside believed that monastic lives were led for the benefit of wider society, and that the sacrifices made by monks in separating themselves from 'normal' human contact functioned as penances on behalf of the community as well as for their own deliverance. Monks were regarded as leading parallel lives that had the power to save themselves and others.

* monastery: 수도원 ** monk: 수도사 *** penance: 참회

- ① How to Gain Religious and Social Benefits from Monastery Life
- ② Why the Middle Ages Demanded Religious Figures Be Isolated
- ③ The Grace of Solitude: Detached from but Attached to Society
- ④ No Sacrificial Leaders, No Flowering of Civilization
- ⑤ Mystery of Power: The Politics of Peace and Solitude

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medieval Europe, [㉠]guilds first arose as associations of craftsmen and merchants who joined forces to regulate prices, maintain standards, and defend their trades against outside rivals. At this early stage, their purpose appeared primarily economic, ensuring stability in local markets and protecting members from exploitation. By setting rules for quality and fair practice, [㉡]guilds functioned as a shield for individual artisans in an uncertain commercial world. Over time, however, [㉢]their role expanded far beyond economics. Guilds trained apprentices, supervised workshops, and preserved technical knowledge across generations. They sponsored religious festivals, funded charities, and built hospitals, thereby linking economic activity with spiritual and civic life. In many towns, guild representatives even sat on city councils, influencing political decisions and shaping urban identity. What began as a narrow alliance of craftsmen thus evolved into an institution that blended economic, cultural, and political authority. Historians emphasize that guilds not only safeguarded trades but also created enduring networks of solidarity. They became a foundation of medieval civic society, illustrating how organizations formed for practical necessity could grow into powerful engines of community cohesion and collective identity.

- ① The Decline of Guilds in the Face of Modern Industry
- ② Why Medieval Cities Relied Solely on Economic Regulations
- ③ Beyond Craft Protection: The Civic Power of Medieval Guilds
- ④ Advantages of Apprenticeship over Independent Craftsmanship
- ⑤ Religious Ceremonies as the Primary Role of Guild Associations

Unit2. 대의파악 학습법 정리

1. 융합적 소재 읽어내기

지문은 특정 학문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서로 다른 영역을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등반 지문은 스포츠와 심리학을, 옥타브 지문은 음악과 물리학을, 사회적 자본 지문은 사회학과 개인적 경험을 융합한다. 이러한 융합적 소재는 학생들에게 낯설게 다가오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자주 활용되는 소재이다.

소재 자체의 생소함에 흔들리지 말고, 핵심 개념어가 어떤 학문적 맥락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표시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모르는 주제가 나와도 정의·사례·결론 구조를 중심으로 읽으면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역직관적 내용 반응하기

지문은 학생들의 직관과 반대되는 결론을 자주 제시한다. 성취감은 실체가 아니라 허구에 근거할 수 있고, 주파수는 달라도 같은 음으로 인식되며, 수도원은 고립된 공간 같지만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이처럼 역직관적 메시지가 글의 요지를 형성한다.

읽으면서 “내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역설적 전환이나 관점의 뒤집힘이 나타나는 부분을 밑줄 치고, 지문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3. 대립 구조를 활용하기

많은 지문은 대립 개념을 통해 주장을 전개한다. 정보 vs 의미, 지식 vs 관계, 생존 수단 vs 문화적 상징, 고립 vs 사회적 기여 등이 대표적이다. 대립 구조는 난이도를 높이는 장치이지만 동시에 지문 이해의 길잡이가 된다.

글을 읽을 때 대립되는 개념을 찾아 좌우로 구분하여 적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필자의 주장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를 빠르게 파악하면, 요지와 정답 선지를 정확히 선택할 수 있다.

4. 표층 사실을 넘어 결론에 도달하기

많은 학생들이 사례나 표면적 설명에 머무르지만, 실제로는 결론이 요지이다.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 사례는 ‘의미는 해석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을 위한 장치일 뿐이고, 개인적 기억 사례는 ‘자서전에는 기억이 핵심적 증거가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지문을 읽을 때 사례는 왜 제시되었는가를 묻고, 마지막에 필자가 내린 결론을 반드시 표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문제 풀이 시에는 사례만 옮긴 선지를 배제하고, 결론을 담은 선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 오답선지의 특징 알아두기

오답 선지는 일정한 패턴으로 구성된다.

- ① 핵심 요소를 빠뜨리는 누락형
- ② 본문에 없는 원인·결과를 추가하는 첨가형
- ③ 빈도·범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일반화 왜곡형
- ④ 인과 방향이나 개념 범주를 뒤집는 전도형

선지를 볼 때, 먼저 본문 **핵심 개념과 개념에 대한 서술이 선지에 보존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이어서 없는 원인 첨가 / 범위 과장 / 인과 전도가 들어갔는지를 체크하는 절차적 습관을 익히면, 오답 제거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학생들은 따라서 ① 융합적 소재에 겁먹지 않고, ② 역직관적 메시지를 찾아 내며, ③ 대립 구조를 활용해 요지를 잡고, ④ 사례를 넘어 결론을 파악하고, ⑤ 오답 패턴을 절차적으로 검증하는 학습 전략을 가져야 한다.

Unit3. 실전 연습문제-Set1

21. 밑줄 친 부분 “an excess of ease” 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5)

* 2개중항
* 영 작관작
0442

In ecology, researchers observe that environments overflowing with resources do not always produce the most resilient systems. Paradoxically, ecosystems marked by scarcity often display greater diversity and adaptability. When food is limited or conditions fluctuate, species are forced to innovate—developing new strategies for survival, sharing resources, or occupying niches that would otherwise remain unused. What looks like deprivation may actually be the seed of resilience. Economists have noted a similar principle in human societies. Communities with moderate constraints frequently generate more sustainable innovations than those flooded with abundance. Just as plants in arid regions evolve deep roots to extract water, firms facing tight budgets often design creative solutions that wealthier competitors overlook. In both cases, constraints act less like barriers than like frameworks that stimulate unexpected growth. For this reason, scholars describe many modern environments as suffering from an excess of ease. By attempting to remove all obstacles in the name of comfort and efficiency, societies risk undermining the very pressures that foster flexibility and invention. The lesson is clear: too much ease can paradoxically create fragility.

- ① the innate drive of all species to maximize convenience
- ② the human ability to endure hardship without significant difficulty
- ③ the universal improvement of adaptability in resource-rich conditions
- ④ the weakening effect of excessive comfort on resilience and innovation
- ⑤ the complete absence of barriers in both natural and social systems

2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6)

Educators and psychologists increasingly emphasize the role of curiosity quotient (CQ) in learning and problem-solving. Unlike IQ, which measures reasoning ability, or EQ, which reflects emotional awareness, CQ refers to the tendency to seek out new information, ask questions, and explore unfamiliar situations. This quality often determines how well individuals adapt to rapidly changing environments. Consider, for example, students faced with emerging technologies. Those with high CQ are more willing to experiment with unfamiliar tools, even at the risk of initial mistakes. Over time, their exploratory habits allow them to acquire practical skills more quickly than peers who hesitate to leave their comfort zones. Similarly, in the workplace, employees with strong curiosity often detect opportunities or problems that others overlook, precisely because they keep asking questions others fail to raise. For this reason, researchers argue that CQ is not a minor supplement to IQ or EQ but a distinct factor that shapes long-term success. A society that nurtures curiosity does not merely accumulate knowledge; it fosters resilience, innovation, and the capacity to thrive amid uncertainty.

* 개념설명
* 사례제시
* 결론

- ① 호기심은 지적 능력보다 언제나 우월하며 성공을 보장한다.
- ② 호기심 지수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혁신을 이끄는 핵심적 역량이다.
- ③ 호기심이 강한 사람은 실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 ④ 호기심 지수는 학생보다 직장인에게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 ⑤ 호기심 지수는 단기적 성취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 성공과는 무관하다.

2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psychology, daydreaming has often been dismissed as a failure of attention, a sign that the mind is wandering away from important tasks. Traditional educational models, in particular, warned that students lost valuable learning time whenever they drifted into private fantasies. Yet recent research suggests that daydreaming is not merely wasted time but a distinctive cognitive process with surprising benefits. Neuroscientists have found that when people daydream, brain networks associated with memory and imagination become highly active. This state allows individuals to connect distant ideas, rehearse possible scenarios, and even generate original solutions to problems. By contrast, strict focus on immediate tasks may limit the ability to think flexibly. For example, participants instructed to let their minds wander briefly before attempting creative tasks often outperform those kept under continuous concentration. Thus, scholars conclude that daydreaming should not be seen only as distraction. Rather, it functions as a mental workspace in which the mind reorganizes information and prepares for innovation. The challenge is not to eliminate daydreaming, but to recognize when and how it can support meaningful thought.

- ① constructive functions of daydreaming in fostering creativity and problem-solving
- ② harmful effects of daydreaming on students' ability to concentrate in class
- ③ strategies for eliminating unnecessary mental wandering in daily activities
- ④ neurological differences between focused attention and memory recall
- ⑤ cultural attitudes toward daydreaming across different educational traditions

2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cient port cities were often regarded as fragile communities, heavily dependent on outside merchants and vulnerable to the rise and fall of distant empires. Their open harbors seemed to symbolize exposure rather than strength, as waves of foreigners arrived with unfamiliar goods, languages, and customs. To many observers, these settlements appeared less stable than inland centers protected by walls and rooted in agricultural self-sufficiency. Yet historians now argue that this very openness gave port cities their distinctive resilience. By serving as crossroads of trade and culture, they became laboratories of innovation. Alphabetic writing spread through Mediterranean harbors; new religious practices and artistic forms took root where ships unloaded cargo; legal codes and political ideas traveled along with spices and textiles. Although often conquered or absorbed by larger powers, these cities repeatedly reemerged as hubs of exchange. The paradox of the port city lies in its dual identity: outwardly dependent on external forces, yet inwardly strengthened by the diversity and dynamism those forces created. In being most exposed, they became most formative.

- ① How Empires Exploited Port Cities for Their Own Survival
- ② Why Inland Agricultural Centers Secured Greater Stability
- ③ The Military Weakness of Coastal Communities in Antiquity
- ④ Economic Advantages of Maritime Trade over Local Production
- ⑤ Exposed yet Enduring: The Paradox of Ancient Port Cities

* 기본정민
↓
* 가의 확장

Unit3. 실전 연습문제-Set2

21. 밑줄 친 부분 an ordered chaos of perception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9)

In neuroscience, synesthesia refers to a condition in which stimulation of one sensory pathway automatically triggers experiences in another. For most people, senses such as sight, sound, and touch remain separate. But synesthetes may perceive a particular tone as a shade of blue, or associate a number with a specific texture. To them sensory boundaries appear more fluid than fixed. Psychologists once dismissed these reports as mere metaphor, assuming people were exaggerating their impressions. However, brain imaging now shows that synesthesia corresponds to measurable cross-activation between regions normally devoted to different senses. What seems like confusion is in fact a consistent and reproducible pattern. Studies even suggest that synesthesia can enhance memory: students who "see" colors when reading numbers recall sequences more accurately than peers without the condition. Because of these findings, researchers describe synesthesia as an ordered chaos of perception. Though it blurs conventional distinctions between senses, it also reveals hidden regularities in how the brain organizes information. Far from being a defect, this unusual condition highlights the brain's ability to connect domains we usually keep apart.

- ① the universal human capacity to invent metaphors for sensory impressions
- ② the complete disintegration of boundaries between different sensory pathways
- ③ the structured cross-activation of senses that appears chaotic but remains consistent
- ④ the random confusion of perception that undermines reliable memory formation
- ⑤ the conscious training of the brain to merge distinct sensory inputs

2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10)

The poet John Keats once coined the term negative capability to describe an artist's ability to remain "in uncertainties, mysteries, doubts, without any irritable reaching after fact and reason." For Keats, great writers did not rush to resolve contradictions but accepted ambiguity as a space where imagination could flourish. Today, scholars extend this idea beyond literature. In psychology, negative capability refers to the capacity to tolerate uncertainty without immediate closure. Leaders who resist the urge to supply quick answers may be better at navigating complex problems, allowing multiple perspectives to coexist before making decisions. Similarly, in science, researchers sometimes progress more effectively when they hold competing hypotheses in mind rather than forcing premature conclusions. This does not mean that clarity and certainty have no value. Rather, the point is that genuine insight often emerges from the willingness to dwell in ambiguity. By embracing doubt, individuals create room for creativity, resilience, and deeper understanding.

- ① 이성적 명료성은 의심을 건디는 태도보다 항상 앞서야 한다.
- ② 모호함을 수용하는 태도는 언제나 판단을 방해하게 된다.
- ③ 부정적 능력은 문학에서만 의미 있고 다른 분야에는 없다.
- ④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길이다.
- ⑤ 불확실성을 건디는 능력은 창의성과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2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¹¹⁾

In the study of manuscripts, a palimpsest refers to a document whose original writing has been scraped or washed off so that the surface could be reused. At first glance, this practice seems like an unfortunate erasure: ancient knowledge destroyed in order to make room for new text. For centuries, scholars regarded palimpsests as compromised artifacts, less valuable than pristine manuscripts. Yet advances in imaging technology have revealed that erased layers often remain faintly visible. Beneath medieval prayers, researchers have discovered lost works of Greek science, Roman law, and even forgotten poetry. The very act of reuse, once seen as destructive, ironically preserved material that might otherwise have vanished completely. Thus, a palimpsest embodies a paradox: it is both an erasure and a preservation. By comparing visible and hidden layers, historians gain insights into how cultures transmitted, transformed, and sometimes concealed their knowledge. Far from being a defect, the palimpsest illustrates how memory and meaning can coexist in overlapping forms.

- ① The ~~decline~~ of manuscript culture with the rise of digital media
- ② The ~~superiority~~ of ~~pristine~~ manuscripts over altered historical documents intact
- ③ The dual nature of palimpsests as both disappearance and survival
- ④ The technical ~~difficulties~~ of recovering texts from damaged surfaces
- ⑤ The ~~exclusive~~ use of palimpsests for religious purposes in medieval Europe

2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¹²⁾

Early observatories were often regarded simply as places where scholars measured the movements of stars and planets. Their original purpose seemed purely scientific: to improve calendars, predict eclipses, or refine astronomical theories. From this perspective, observatories appeared detached from political or social concerns, devoted only to the pursuit of celestial knowledge. Yet historical research shows that observatories served far broader functions. In many empires, astronomical data guided taxation, agriculture, and navigation. Royal patrons built grand observatories not only to advance science but also to project cultural prestige and consolidate authority. The instruments and records housed within them symbolized a state's ability to master both heaven and earth. Far from being neutral, these sites stood at the intersection of science, power, and identity. Thus, the meaning of the observatory extends beyond the study of the skies. It represents a paradoxical institution: outwardly dedicated to detached observation, yet deeply attached to the earthly concerns of governance, economy, and cultural influence.

- ① The ~~Cultural Decline~~ of Astronomy with the Rise of Modern Science
- ② Why Astronomical Studies Were Always ~~Free~~ from Political Influence
- ③ The Technical ~~Difficulties~~ of Measuring Planets in Ancient Times
- ④ Watching the Skies, Shaping Society: The Power of Observatories
- ⑤ ~~How~~ Observatories Functioned Solely as Neutral Scientific Institutions

* 기본 기능

* 기능의 확장

1)

정답: ④

문항 설명:

이 문항은 융합적 소재(인지과학+양자물리), 역직관적 메시지(잡음=비효율이 아니라 창의성의 원천), 정의→사례→비유→일반화의 구성, 그리고 낯선 개념을 ‘a poverty of noise’라는 표현으로 제시해 친숙한 비유로 설명하는 구조를 모두 반영한다.

해석:

인지과학에서 연구자들은 뇌가 특정한 과제에 몰두하지 않을 때조차 발생하는 신경 발화의 혼란스러운 양상에 대해 오랫동안 의문을 품어왔던 것이다. 처음 보기에 이러한 자발적 활동은 의미 없는 배경 잡음처럼 보이며, 산만하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변동이 기억을 공고히 하고 창의적 통찰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마음의 결보기에는 혼란스러운 상태가 사실은 숨겨진 질서를 감추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종종 양자 물리학에서의 유비를 끌어오는 것이다. 아원자 입자가 결코 완전히 정지해 있지 않고 확률적 파동 속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듯이, 뉴런들도 작고 예측 불가능한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결보기에는 무작위적이지만, 이러한 신호들은 연결이 시험되고 강화되거나 혹은 버려질 수 있는 역동적 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성이 없다면, 뇌는 경직되어 새로운 정보에 적응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현대 인지를 ‘잡음의 빈곤’에 시달린다고 묘사하는 것이다. 효율성에 집착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쓸모없이 보이는 생각을 억누르려 애쓰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변동을 침묵시킴으로써 사람들은 유연한 추론과 창의적 연상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변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정답 근거:

본문은 뇌의 무작위적 신호가 창의성과 적응을 돕는데, 이를 제거하려는 현대

사회가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말한다. 따라서 a poverty of noise는 “적응적 사고에 필수적인 무작위적 변동의 결핍”을 의미한다.

오답 유형 분석:

- ① 일반화 왜곡형: 본문은 잡음의 결핍을 문제 삼았는데, 오답은 “constant presence of meaningless impulses”로 반대로 왜곡한다.
- ② 누락형: “absence of distraction”만 언급하고, 본문 핵심인 “random fluctuations essential for creativity”가 빠져 있다.
- ③ 첨가형: 본문에 없는 “evolutionary guarantee”를 덧붙였다.
- ⑤ 전도형: 본문은 외적 자극을 줄이는 것이 항상 유익하지 않다고 했는데, 선택지는 “stimuli minimized → universal improvement”라는 전도된 논리를 제시한다.

2) 정답: ①

해석:

최근 몇 년 동안 학자들은 신뢰 자본을 공동체와 조직 내에서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자원이라고 말해온 것이다. 재정 자본이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신뢰 자본은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공유된 기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끊임없는 감시와 협상의 비용을 줄여주며, 협력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동료들이 제시한 과제에 완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직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훨씬 적은 규칙과 상기가 필요하며, 협업은 의심으로 인해 덜 방해받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기꺼이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을 빌려주며,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신뢰는 사회적 접촉체처럼 작용하여 개인들을 하나의 기능하는 전체로 묶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학자들은 강한 신뢰 자본을 가진 사회가 더 높은 수준의 혁신, 회복력, 그리고 집단적 안녕을 누린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뢰가 결여된 곳에서는 잘 설계된 제도조차도 흔들리며, 의심과 과도한 감독으로 인해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신뢰는 무형이지만, 인간의 협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본질적인

자본 형태 중 하나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문항 설명:

이 문항은 6월(Information vs Meaning)·9월(Social Capital) 지문처럼, “추상 개념 정의 → 사례 → 결론 일반화”라는 설명문 패턴이다.

정답 근거:

지문 전체는 trust capital을 정의하고,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사회적 효율성과 협력을 높이는 자본”임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오답 패턴:

- ② 일반화 과잉: “반드시 붕괴”라는 극단적 확대.
- ③ 부분 사실: 개인 성실성만 강조해 핵심 의미를 누락.
- ④ 가치 판단 첨가: 본문에 없는 “금융 자본보다 우월”을 추가.
- ⑤ 전도형 왜곡: 규칙과 감시가 줄어든다는 본문을 “완전히 제거”라고 과장.

3) 정답: ⑤

해석:

최근 의사 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학자들은 은유의 역할을 단순한 수사적 언어 이상의 것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전통적 관점이 은유를 문체적 장식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인지과학자들은 은유가 사람들이 복잡한 사안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틀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실험은 동일한 사회 문제를 서로 다른 은유로 제시했을 때—범죄를 “침승”으로 묘사하는 것과 “바이러스”로 묘사하는 것—참가자들이 놀람도록 다른 정책적 해결책을 제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은유가 데이터나 논리를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오히려 은유는 증거와 함께 작동하여 해석을 이끌고, 어떤 측면은 강조하면서 다른 측면은 배경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정치 연설, 과학적 논쟁, 심지어 일상적 대화까지도 이러한 틀 짓기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다. 비평가들은 은유가 추론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옹호자들은 은유가 없다면 많은 추상적 주제들이 여전히 접근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은유가 사용되어야 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사용되는가인 것이다. 은유적 틀 짓기와 순수한 문학적 서술을 대비시킴으로써 학자들은 은유가 필수적인 인지적 도구로 기능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이다. 은유는 단지 의사소통을 장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단과 결정, 그리고 집단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문항 설명:

중심 개념(메타포)의 역할과 의의를 묻는 설명문형 문제이며, 비교·대조(은유 vs 직설) 구조와 정답=요지 재진술이라는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다.

정답 근거: 지문 전체는 은유를 단순 장식이 아닌 사고와 판단을 형성하는 인지적 도구로 설명하며, 결론도 그 의의에 맞춰져 있다.

오답 패턴:

- ① 축소형: 수사적 장치 비교는 본문 결론과 연결되지 않는다.
- ② 가치 판단 첨가: 왜곡 위험은 언급되지만, 본문 요지가 ‘위험’에만 초점은 아님.
- ③ 논점 왜곡: 직설적 표현의 장점만 강조, 본문 전체 요지와 무관.
- ④ 국지적 사실 확대: 정치·과학 사례는 예시일 뿐, 본문 요지가 아니다.

4) 정답: ③

해석:

중세 유럽에서 길드는 장인과 상인들이 가격을 규제하고, 기준을 유지하며, 외부 경쟁자로부터 그들의 생업을 방어하기 위해 힘을 합친 협회로 처음 등장한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 그 목적은 주로 경제적이었으며, 지역 시장의 안정을 보장하고 구성원을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던 것이다. 품질과 공정한 관행을 위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길드는 불확실한 상업 세계 속에서 개별 장인을 보호하는 방패로 기능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역할은 경제를 훨씬 넘어 확장된 것이다. 길드는 견습생을 훈련시키고, 작업장을 감독하며, 세대를 거쳐 기술적 지식을 보존한 것이다. 또한 종교 축제를 후원하고,

자선을 기금으로 지원하며, 병원을 세움으로써 경제 활동을 종교적·시민적 삶과 연결시킨 것이다. 많은 도시에서 길드 대표들은 시의회에까지 참여하여 정치적 결정을 좌우하고 도시 정체성을 형성한 것이다. 장인들의 좁은 동맹으로 시작된 길드는 이처럼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권위를 결합한 제도로 발전한 것이다. 역사가들은 길드가 단지 생업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대의 네트워크를 창출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길드는 중세 시민 사회의 토대가 되었으며, 실용적 필요에서 형성된 조직이 어떻게 공동체 결속과 집단 정체성의 강력한 원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문항 설명:

원래는 단순히 장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제적 조직 →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 정치·교육·문화까지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확장

정답 근거:

지문은 길드가 경제적 기능에서 출발해 사회·정치적 제도로 확장된 과정을 강조한다.

오답 패턴:

- ① 추가/왜곡: “쇠퇴”는 본문에 언급 없음.
- ② 축소: 단순 경제 규제만 강조, 확장된 의미 누락.
- ④ 국지적 사실 강조: 견습 제도만 지엽적으로 부각.
- ⑤ 왜곡: 종교 행사는 일부 기능이지 주된 역할이 아님.

5) 정답: ④

문항 설명:

이 문제는 생태학+경제학 융합 소재, “풍요가 아니라 제약이 창의성을 만든다”는 역직관적 메시지, 정의→사례→일반화 패턴, 그리고 낯선 개념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구조까지 모두 반영한다.

해석:

생태학에서 연구자들은 자원이 넘쳐나는 환경이 반드시 가장 회복력 있는 체계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결핍이 두드러지는 생태계가 종종 더 큰 다양성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음식이 제

한되거나 조건이 변동할 때, 종들은 생존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자원을 공유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용되지 않을 틈새를 차지하도록 강요받는 것이다. 결핍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회복력의 씨앗일 수 있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인간 사회에서 유사한 원리를 지적해온 것이다. 적당한 제약을 지닌 공동체가 풍요로움에 넘쳐나는 공동체보다 더 지속 가능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이다. 마치 건조한 지역의 식물들이 물을 끌어내기 위해 깊은 뿌리를 진화시키듯이, 뻣뻣한 예산에 직면한 기업들이 부유한 경쟁자들이 간과하는 창의적 해결책을 고안하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에서 제약은 장벽이라기보다 예상치 못한 성장을 자극하는 틀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자들은 많은 현대 환경이 지나친 안락의 과잉에 시달린다고 묘사하는 것이다. 편안함과 효율성의 이름으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사회는 유연성과 발명을 촉진하는 바로 그 압력을 약화시킬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교훈은 분명한 것이다. 지나친 안락은 역설적으로 취약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정답 근거: 본문은 지나친 편안함이 제약을 없애고, 그 결과 창의성과 회복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an excess of ease는 “창의성과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해로운 풍요”를 뜻한다.

오답 패턴:

- ① 일반화 왜곡형: “maximize convenience”라는 과잉 일반화로 본문 요지를 왜곡했다.
- ② 누락형: “endure hardship”이라는 부분적 의미만 남기고 ‘풍요의 부정적 효과’라는 핵심을 누락했다.
- ③ 첨가형: 본문은 오히려 풍요가 적응성을 약화시킨다고 했는데, 선지는 “resource-rich → improvement”라는 잘못된 인과를 첨가했다.
- ⑤ 전도형: 본문은 “ease → fragility”인데, 선지는 “absence of barriers → neutral description”으로 논리 방향을 뒤집었다.

6) 정답: ②

교육자들과 심리학자들은 학습과 문제 해결에서 호기심 지수(CQ)의 역할을

점점 더 강조하는 것이다. IQ가 추리 능력을 측정하고 EQ가 감정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과 달리, CQ는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고, 질문을 던지며, 낯선 상황을 탐색하려는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특질은 개인이 급변하는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종종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에 직면한 학생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CQ가 높은 학생들은 초기의 실수를 감수하더라도 낯선 도구를 기꺼이 실험하려 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탐구적 습관은 자신의 안락한 영역을 벗어나기를 주저하는 또래들보다 더 빠르게 실용적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강한 호기심을 지닌 직원들은 다른 사람들이 제기하지 못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기회나 문제를 자주 포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CQ가 IQ나 EQ를 보완하는 사소한 요소가 아니라 장기적 성공을 형성하는 독립적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호기심을 길러주는 사회는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확실성 속에서 변형할 수 있는 회복력과 혁신, 그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정답 근거: 지문은 CQ를 정의하고, 학생·직장인 사례를 제시하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혁신을 이끄는 핵심 역량”임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오답 패턴:

- ① 가치 판단 첨가: IQ·EQ보다 항상 우월하다는 과잉 결론.
- ③ 일반화 왜곡형: 실수 두려움 감소는 언급되었지만 “전혀 없다”는 극단적 왜곡.
- ④ 부분 사실 누락: 직장 사례만 강조, 학생 사례를 무시.
- ⑤ 축소형: CQ를 단순 ‘정보 추구 태도’로 한정, 지문의 확장된 의미를 누락.

7) 정답: ①

문항 설명:

공상이 단순한 집중 부족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인지 자원. 정의 → 비교/대조 (집중 vs 공상) → 결론 일반화

해석:

심리학에서 백일몽은 흔히 주의력 실패의 징후, 즉 중요한 과제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표시로 무시되어 온 것이다. 특히 전통적 교육 모델은 학생들이 사적인 공상에 빠질 때마다 귀중한 학습 시간을 잃는다고 경고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백일몽이 단순히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놀라운 이점을 지닌 독특한 인지적 과정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신경과학자들은 사람들이 백일몽을 꾸는 동안 기억과 상상과 관련된 뇌 네트워크가 매우 활발해진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 상태는 개인이 서로 멀리 떨어진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미리 연습하며, 문제에 대한 독창적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즉각적인 과제에 엄격히 집중하는 것은 유연하게 생각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창의적 과제를 시도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떠돌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집중을 유지한 참가자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백일몽을 단순한 산만함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마음이 정보를 재조직하고 혁신을 준비하는 정신적 작업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도전 과제는 백일몽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의미 있는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인 것이다.

정답 근거:

지문은 공상을 단순한 산만함이 아니라 창의성과 문제 해결을 돕는 인지 자원으로 설명하며 결론을 맺는다.

오답 패턴:

- ② 부분적 사실 확대: 전통적 시각은 언급되었지만 지문의 최종 결론은 아니다.
- ③ 논점 왜곡: 공상을 제거하는 전략은 지문 주장과 정반대이다.
- ④ 국지적 세부 강조: 뇌 네트워크 차이는 일부 내용일 뿐, 전체 요지가 아니다.
- ⑤ 가치 판단 첨가: 교육적 전통 비교는 본문에 없는 확장이다.

8) 정답: ⑤

해석:

고대의 항구 도시는 종종 외부 상인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먼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취약한 연약한 공동체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들의 열린 항만은 낮은 상품, 언어, 관습을 지닌 외국인들이 물결처럼 밀려드는 가운데, 강점이라기보다 노출을 상징하는 듯 보였던 것이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러한 정착지는 농업 자급에 뿌리를 둔 성곽으로 보호된 내륙 중심지보다 덜 안정적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바로 이러한 개방성이 항구 도시에 고유한 회복력을 부여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다. 무역과 문화의 교차로로서, 그들은 혁신의 실험실이 된 것이다. 알파벳 문자는 지중해의 항구를 통해 퍼져 나갔으며, 배들이 화물을 내리는 곳에서 새로운 종교적 관습과 예술적 양식이 뿌리를 내린 것이다. 법전과 정치적 사상도 향신료와 직물과 함께 전해진 것이다. 비록 종종 더 큰 세력에 의해 정복되거나 흡수되었지만, 이러한 도시들은 반복적으로 교류의 중심지로 다시 부상했던 것이다. 항구 도시의 역설은 그 이중적 정체성에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외부 세력에 의존하는 듯 보이지만, 그 세력이 만들어낸 다양성과 역동성에 의해 내부적으로 강해진 것이다. 가장 노출된 상태에 있으면서, 그들은 가장 형성적인 힘이 되었던 것이다.

근거:

지문은 항구 도시가 외부에 의존해 취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화·사상의 교차점으로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역설을 강조한다.

오답 패턴

- ① 가치 판단 첨가: 제국의 착취는 본문에 없음.
- ② 축소 왜곡: 내륙 도시의 안정성만 부각.
- ③ 부분 사실: 군사적 취약성은 언급되지만 주제가 아님.
- ④ 국지적 강조: 무역 효율성만 강조, 지문 결론과 무관.

9) 정답: ③

문항 설명:

생소한 신경과학 소재(공감각)를 기반으로, 역설적 개념(질서 있는 혼돈)을 중심으로 묻는 문항

해석:

신경과학에서 공감각은 한 감각 경로의 자극이 자동으로 다른 감각에서의 경험을 유발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각, 청각, 촉각과 같은 감각들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감각을 지닌 사람들은 특정 음을 푸른색의 한 색조로 지각하거나 숫자를 특정한 촉감과 연관 짓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감각의 경계는 고정된 것보다 유동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한때 이러한 보고를 단순한 은유로 치부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인상을 과장한다고 가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뇌 영상 연구는 이제 공감각이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감각에 할당된 영역들 사이의 측정 가능한 교차 활성화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혼란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일관되고 재현 가능한 패턴인 것이다. 연구들은 심지어 공감각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시사하는 것이다. 숫자를 읽을 때 색을 “보는” 학생들이 이 조건이 없는 또래들보다 수열을 더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들 때문에 연구자들은 공감각을 시각의 질서 있는 혼돈이라고 묘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통적인 감각 간 구분을 흐리게 하지만, 동시에 뇌가 정보를 조직하는 숨겨진 규칙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합과는 거리가 먼 이 특이한 상태는 우리가 보통 분리해 두는 영역을 연결하는 뇌의 능력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정답 근거:

본문은 공감각이 겉보기에 혼란스러우나 실제로는 일정한 규칙성과 일관성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오답 패턴:

- ① 누락: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신경 활성화임.
- ② 과장: “완전 붕괴”는 본문에 없음.
- ④ 왜곡: 공감각이 기억을 돕는 사례가 있는데, “기억 저해”라고 반대 의미 제시.
- ⑤ 첨가: “훈련으로 의도적 생성”은 본문에 없는 내용.

10) 정답: ⑤

문항 설명:

생소한 개념어 negative capability를 중심으로, 개념 설명형 문항

정답 근거:

지문은 negative capability를 정의하고 문학·심리·과학 사례를 통해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이 창의성과 통찰을 낳는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오답 분석

- ① 가치 판단 첨가: “항상 우선시해야 한다”는 과장된 주장.
- ② 왜곡: 불확실성이 항상 방해된다고 일반화.
- ③ 축소: 문학에만 국한, 다른 분야 사례 무시.
- ④ 반대: 빠른 해답이 아니라 모호함 수용이 핵심.

11) 정답: ③**해석:**

필사본 연구에서 팔립프세스트는 원래의 글이 지워지거나 찢어져 표면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문서를 가리키는 것이다. 처음 보기에 이러한 관행은 불행한 지움, 즉 새로운 글을 쓰기 위해 고대의 지식을 파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팔립프세스트를 온전한 필사본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손상된 유물로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영상 기술의 발전은 지워진 층이 종종 희미하게 남아 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중세의 기도문 아래에서 연구자들은 그리스 과학, 로마 법, 심지어 잊혀진 시의 유실된 작품들을 발견한 것이다. 한때 파괴적이라고 여겨졌던 바로 그 재사용 행위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았다면 완전히 사라졌을 자료를 보존한 것이다. 따라서 팔립프세스트는 지움이자 보존이라는 역설을 구현하는 것이다. 보이는 층과 숨겨진 층을 비교함으로써 역사가들은 문화가 지식을 어떻게 전달하고, 변형하며, 때로는 감추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것이다. 결함과는 거리가 멀게, 팔립프세스트는 기억과 의미가 서로 겹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답 근거:

지문은 팔립프세스트의 본질을 “지움과 보존의 역설적 공존”으로 설명한다.

오답 분석

- ① 왜곡: 디지털 시대 쇠퇴는 언급되지 않음.
- ② 가치 판단 첨가: 원본 우월성 강조는 본문과 다름.
- ④ 부분적 사실: 해독의 어려움은 언급되나 요지가 아님.
- ⑤ 축소: 종교적 사용에만 국한시킴.

12) 정답: ④**해석:**

필사본 연구에서 팔립프세스트란 원래의 글을 지우거나 찢어내어 표면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문서를 말한다. 처음에는 이러한 관행이 불가피한 지움, 곧 새로운 글을 쓰기 위해 고대의 지식을 파괴한 행위처럼 보인다.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팔립프세스트를 온전한 필사본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손상된 유물로 여겨 왔다. 그러나 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지워진 층이 종종 희미하게 남아 있음이 밝혀졌다. 중세의 기도문 아래에서 연구자들은 그리스 과학, 로마 법, 심지어 잊힌 시의 유실된 작품까지 발견하였다. 한때 파괴적이라 여겨졌던 바로 그 재사용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았다면 완전히 사라졌을 자료를 오히려 보존한 셈이 되었다. 따라서 팔립프세스트는 지움이면서 동시에 보존이기도 한 역설을 구현한다. 보이는 층과 숨겨진 층을 비교함으로써 역사가들은 문화가 지식을 어떻게 전하고 변형하며 때로는 감추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된다. 결함과는 거리가 먼, 팔립프세스트는 기억과 의미가 서로 겹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답 근거:

지문은 천문대가 과학적 기능 → 사회·정치·문화적 의미로 확장된 과정을 강조한다.

오답 분석

- ① 첨가: “근대 과학 이후 쇠퇴”는 언급 없음.
- ② 왜곡: 정치적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 → 본문과 반대.
- ③ 축소: 기술적 어려움만 언급 → 지문의 요지 아님.
- ⑤ 축소/왜곡: 중립적 과학 공간만 강조 → 본문 메시지와 반대.